

## 샤리아에 규정된 동성애와 이슬람사회의 동성애 인식\*

| 임 병 필\*\* |  
Lim, Byung-Pil

### **Homosexuality in the Shari'ah and the perception of Islamic societies**

Through my studies I got some results. Islam, in order to preserve and protect their societies sound, demanded a severe punishment to the illegal relations between the sexes. Therefore Islam took the story of Lot and his people of Koran as the basis for the warning and punishment of Allah about the homosexuality, and then used the expressions of the prophet Muhammad's Sunnah as the ground for the serious crime which the homosexuality needed the severe punishment. After that, the four law schools and the modern Fatwa also interpreted the expressions of both Koran and Hadith as the basis for the warning and punishing the homosexuality.

However, though the Islamic societies demanded the strong punishment like lashing, banishment, death penalty(stoning, firing, beheading, burying alive) to the homosexuals, the homosexuality extended to Khalifa, army, poet, sufi, religion teacher, royal dancer, massage boy, women in harem and also in general, elite women and the homosexuality between them was connived as the open secret. The reason and the cause of homosexuality were very diverse like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62-A00004).

\*\* 명지대학교 중등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bplim@hanmail.net



the privileged sense, political end, love for God, price for teaching, freedom of the isolated or oppressed women, disobedience against the mail-dominated society. I think, the main reason why the homosexuality couldn't be rooted out from the Islamic societies is because there was no single voice to the homosexuality by Koran, Hadith, the law schools and Fatwa.

**[Key Words : Shari'ah, homosexuality, liwat, Koran, Hadith, schools of law in Islam, Fatwa, adultery, Zina, poetry of homosexuality, Harem]**

## I. 서론

이슬람은 “결혼이 신앙의 절반” 이라고 할 정도로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한 자손 번성과 원활한 성생활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슬람은 독신 생활을 반대하고 성적 쾌락을 신자의 합법적 권리로 인정하며, 성 자체가 가정 내에서 신성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sup>1)</sup> 반면에 결혼이라는 허용된 제도 이외의 어떠한 성적 결합도 금지하였으며,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가 사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차단하였다. 이렇듯 남녀간의 금지된 성적 접촉을 가족과 사회를 파괴하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슬람세계에 동성애 문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논쟁의 쟁점이 되어 오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sup>2)</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성애<sup>3)</sup>에 관해 다루고 있는 샤리아 구절들을 구체적

1) 이슬람은 신도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대가족, 일부다처, 많은 자녀 생산을 장려하였는데 일부다처제로 인한 일부 남성의 여성 독차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Jelena Čvorović 2006, 101). 이슬람 법학파들 중 말리키와 하나피 학파는 결혼을 남성의 의무이며, 결혼이 성적 문란함과 간음, 동성애로부터 남성을 지켜준다고 보았다(하이다 모기시 2009, 50-51).  
2) 법학파들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비난하고 처벌을 주장하였지만 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이 되어 왔다(Jelena Čvorović 2006, 87-8).  
3) 본 논문에서는 ‘동성애’ 를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이나 우호적인 감정이 아니라 행위와 처벌이 동반되는 동성 간의 실제 관계라는 의미로 한정하여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동성애’ 를 나타내는 용어로 ‘리와프(لواط), 루피야(لوطية), 수후프(سحق), 시하프(سحاق), 무사하까(مساحقة)’ 가 사용되는데, ‘리와프’ 는 남성 동성애 또는 남녀를 불문한 항문 성교를 말하며, ‘수후프’ 는 여

으로 살펴보고, 이슬람사회의 동성애 현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란과 하디스, 순니 4대 법학파(한발리, 말리키, 샤피이, 하나피)와 파트와(질문과 대답)의 동성애에 관한 규정과 시각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슬람사회의 시대별 현상과 인식은 어떠한지? 동성애가 행해졌던 장소와 대상,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아랍-이슬람세계의 가장 주도적인 기록 매체였던 시문학에서는 동성애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등등의 문제 제기를 통해 샤리아와의 상관성을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sup>4)</sup>

본 연구는 현대에 들어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논란<sup>5)</sup>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시간적, 공간적인 시점에서 불법이나 합법이나를 판단하거나 아랍-이슬람세계의 동성애 실상에 대한 비판적인 고발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 보다는 문화상대주의의 시각을 견지하여 이슬람세계의 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함으로써 아랍과 이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성 동성애를 나타낸다.

- 4) 본 연구의 독창성과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주요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에서 이슬람과 동성애에 관해 언급한 논문은 “이슬람과 성적 소수자” (2014)가 유일하다. 이 논문은 이슬람세계의 성적 소수자와 인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 연구와는 연구 방향이 달라 방향 설정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외 참고문헌에 언급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들은 샤리아와 동성애를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사회적 인식만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 본 논문은 샤리아에 입각해 그 규정과 처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면서도 이슬람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샤리아 적용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동성애를 다룬 외국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Homosexuality in Islam과 “The role of Homosexuality in classical Islam” 을 들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저서는 코란과 하디스, 법학파들의 동성애에 관한 내용들과 성소수자의 결혼과 경험들을 그들의 권리와 인권에 의거해 분석하였으며, 본고의 균형 있는 시각 견지에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선행연구는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본 논문의 샤리아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이슬람사회에 나타난 동성애의 상황과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한 방향성을 제공하였다.
- 5)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A/HRC/Res/17/19)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인권이사회를 구성하는 47개의 국가 가운데 23개 국가가 찬성을, 19개 국가가 반대를, 3개 국가가 기권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결의안이라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이 결의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슬람계 국가들은 모두 반대하였다(안정국 2013, 161).



## II. 샤리아의 동성애 규정과 시각

본 장에서는 이슬람의 법체계인 샤리아의 가장 중요한 법원들인 코란과 하디스의 동성애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고, 코란과 하디스에 의거해 독자적인 법 해석을 했던 법학파들의 동성애에 대한 규정과 시각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동성애 문제의 현재성을 획득하기 위해 카타르 법무성 산하 파트와(질문과 대답) 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성애 관련 파트와 일부를 소개할 것이다.

### 1. 코란

코란에서 동성애 관습에 대한 언급은 예언자 롯(Lot)과 그의 백성들이 한 행동에 관한 제7장 80~84절에 나타나 있다.<sup>6)</sup>

“하나님이 롯을 보내니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전 어떤 세상 사람도 하지 아니한 부도덕한(الفاحشة) 일을 너희들은 저지르단 말이노” [80절] / 너희는 여성 대신 남성에게 욕망을 가지고 접근하니 실로 명령을 위반한 백성이라 [81절] /이때 그의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길 “그들을 마을에서 추방하라. 실로 이들은 순수해지려 하는 사람들이다” [82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제외한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하였다. 그녀는 명령을 위반한 이들 중에 있었다 [83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위에 비를 내렸다. 그러니 죄인들의 말로가 어떤 했는지 보라 [84절] ”

6) 코란에 동성애 행위를 한 롯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26장 165~166에도 언급되고 있으며(유수프 까르다위 2012, 196~197) 그 외에도 6:86, 11:70-81, 15:59-61, 21:71-74, 22:43, 27:54-56, 29:26-33, 37:133, 38:13, 50:13, 54:33-34, 66:10에서 관련 구절들이 발견된다(최영길 외 2005, 992). 롯이 애굽을 떠나 소돔에 정착할 당시 그곳 사람들의 도덕성은 부패했고 성의 윤리는 극도로 타락해 있었으며 인류 역사상 동성애를 즐긴 최초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최영길 2009, 89~92/ محمد أحمد 1985: 59-65). 한편 코란에는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성 전환’ 과 같은 용어들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는다(Hassan El Menyawi 1912, 435/ Scott Siraj al-Haq Kugle 2010, 50).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동성애에 빠진 롯의 백성들에게 (유황) 비를 내려 멸하였다’는 것인데,<sup>7)</sup>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동성애의 처벌에 대한 언급은 코란 제4장 15절과 16절에서 발견된다.

“너희 여인들 가운데 음란한 자 있다면 네 명의 증인을 세우고 만일 여인들이 인정할 경우 그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집안에 감금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여인들에게 명할 것이라.” (15절)<sup>8)</sup>

“너희들 가운데 있는 두 남자들이 비 합법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두 사람의 명예를 빼앗아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잡는다면 내버려두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수락하는 자비로운 분이시라.” (16절)<sup>9)</sup>

이상의 코란 구절들이 동성애와 그 처벌에 관한 구절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있어 왔으며, 전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구절이라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위의 코란 구절들을 동성애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븐 하즘과 같은 반박 주장을 충분히 고

- 7) 많은 고전 법학자들은 이 구절이 동성애 죄와 그 처벌에 관한 구절이라고 주장하지만, 안달루스의 법학자 이븐 하즘(994-1064)은 이상의 코란 구절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언급한 구절이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는 롯의 백성들이 멸망한 주된 이유가 동성애 행위 때문이 아니라, 롯의 부족이 우상숭배자들이었으며 예언자인 롯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자들과 함께 여성, 아이들까지도 벌을 받았다는 것이다(Hassan El Menyawi 1912, 436-438/ Scott Siraj al-Haqq Kugle 2010, 51-56). 또한 현대의 성소수자(게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무슬림들도 롯의 이야기를 동성애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이 이야기는 불신앙과 롯의 예언자성에 대한 거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cott Siraj al-Haqq Kugle 2010, 51).
- 8) 이 구절이 여성 동성애를 가리킨다는 주장은 10세기 무으타질라 학자인 알리스파하니(897-967)가 처음으로 주장했으며, 이후에 앓자마크샤리(1074-1143)나 알바이다위(?-1292) 등이 반복한 것이다(Scott Siraj L-Haqq Kugle 2010, 64). 그러나 이 구절이 여성 동성애에 관한 구절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Kecia Ali 2010, 81).
- 9) 이 구절(والَّذِينَ يَأْتِيَنَّاهُمْ مِنْكُمْ فَاتَّبِعْنَاهُ فَإِن تَابَا وَأَصْلَحُوا فَأَعْرَضْنَا عَنْهُمَا إِنَّ اللَّهَ كَانَ تَوَّابًا رَحِيمًا)에 사용되고 있는 ‘둘(هُمَا)’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동성애로 이해하지만(Scott Siraj al-Haqq Kugle 2010, 156)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두 남자이거나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비합법적인 이성애(ʿuṣ)로 보기도 한다(Jane Dammen McAuliffe 2002, 445). 이 구절 또한 동성애에 대한 금지 명령이라기 보다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코란에는 크고 작은 죄와 위반에 대한 처벌과 회개가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동성애에 대한 처벌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Martin 1997, 5-7).



려한다 하더라도 동성애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하디스와 이후의 칼리파들 그리고 법학자들에 의해서도 ‘룻의 백성들이 한 행위’는 동성애와 관련 지어 언급되고 있다.<sup>10)</sup>

## 2. 하디스

한편 예언자 무함마드의 순나를 기록한 하디스에는 동성애에 대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이는 코란의 불명료함이나 해석의 개방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7세기 초에 계시된 코란이 이후의 이슬람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예언자로부터 전해진 이야기들과 일화들이 권위와 지식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코란에서 명료한 개념과 처벌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이슬람사회와 법학자(울라마)들은 자연스럽게 순나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우선 하디스에 언급된 동성애 관련 구절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번호	전승자	내용	출처
①	아부 후라이라 (599~676)	룻의 백성들이 한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 “위에 있는 자와 아래 있는 자 모두를 돌로 쳐라.”	سنن ابن ماجه Book 20, Hadith 2659
②	이븐 압바스 (618~687)	“너희들 중 룻의 백성들이 한 행위를 하는 자를 발견하는 이는 능동자와 수동자를 살해하라.”	جامع الترمذي 1456
③	이븐 압바스	결혼을 하지 않은 한 남자가 동성애 죄로 체포되면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سنن أبي داود 4463
④	이븐	“너희들 중 룻의 백성들이 한 행위를 하는	،سنن ابن ماجه

10) 예언자 무함마드(570-632) 사후 칼리파가 된 아부 바크르(632-634 재위)는 “룻의 백성이 한 행위”를 저지른 한 남자에 대한 판결이 요청되었을 때, 혐의를 거쳐 코란에 언급된 룻의 백성에게 행해진 알라의 처벌과 같이 화형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이것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최초의 처벌로 기록되었으나, 그의 처형이 동성애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배교 행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Scott Siraj al-Haqq Kugle 2010, 135, 139).

11) 동성애 관련 내용들은 6대 하디스(سنن جامع الترمذي، سنن أبي داود، سنن التيساني، سنن مسلم، صحيح البخاري، صحيح مسلم)를 정리해놓은 웹사이트(<http://sunnah.com/>)에서 ‘(لوطي)لوطية’, sodomy, homosexuality’ 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관련 구절들을 추출하고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압바스	자를 발견하는 이는 능동자와 수동자를 살해하라.”	Book 20, Hadith 2658
⑤	자비르 본 압둘라 (?~697)	“내가 이슬람 공동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롯의 백성들이 한 행위이다.”	سنن ابن ماجه, Book 20, Hadith 2563
⑥	이븐 압바스	“만일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여성 같은 이여(با مختلطة)’ 라고 말하면 그를 채찍으로 20대 처라. 만일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동성애자여(با لوطي)’ 라고 말하면 그를 채찍으로 20대 처라.”	سنن ابن ماجه, Book 20, Hadith 2665
⑦	자비르 본 압둘라	“내가 이슬람 공동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롯의 백성들이 한 행위이다.”	جامع الترمذي 1457 <sup>12)</sup>
⑧	이븐 압바스	“너희들 중 롯의 백성들이 한 행위를 하는 자를 발견하는 이는 능동자와 수동자를 살해하라.”	سنن أبي داود 4462 <sup>13)</sup>
⑨	이븐 압바스	만일 어떤 사람이 한 소년과 동성애를 즐기게 되면 그 소년의 어머니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다.	صحیح البخاري 5105

이상의 하디스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하디스 구절 또한 코란 구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가 이슬람 공동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롯의 백성들이 한 행위이다” 라는 하디스 구절을 이븐 하즘의 반론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자들의 이교도적인 행동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너희들 중 롯의 백성들이 한 행위를 하는 자를 발견하는 이는 능동자와 수동자를 살해하라” 라는 구절에서 ‘능동자와 수동자’도 이교도적인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추종자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 이교도적인 행동에서 동성애를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이 구절에서 ‘롯의 백성들이 한 행위’를 동성애 행위로 한정하고, 동성애를 지나

12) 전승자(자비르 본 압둘라)와 그 내용이 동일하지만 최종 전승자가 다른 경우이다. ⑤의 최종 전승자는 아즈하르 본 마르완이며, ⑦은 아흐마드 본 마이이다.  
 13) 전승자(이븐 압바스)와 그 내용이 동일하지만 최종 전승자가 다른 경우이다. ②의 최종 전승자는 무함마드 본 아르민이며, ④는 무함마드 본 앓삽바흐, ⑧은 본 무함마드 본 알리 앓누파일리이다.



(간음)에 상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슬람 공동체 움마가 가장 경계해야만 할 중대 범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동성애에 대한 처벌 여부나 그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구절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처벌이 둘, 즉 투석형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나(①, ③), 일부 구절에서는 처벌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②, ④, ⑦, ⑨),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⑤, ⑦), 동성애 지향에 대한 처벌이나(⑥), 결혼 제한(⑨)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③에서 미혼자에 대한 투석형만 언급하고 있지만, ①에서와 같이 위에 있는 자와 아래 있는 자 모두에게 투석형을 집행하거나 ②(④, ⑧)에서 보듯 능동자와 수동자에게 투석형을 집행하는 것을 볼 때 기혼자 또한 당연히 투석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 3. 법학파

동성애 행위의 처벌 여부나 방식에 대한 문제는 하디스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통일되지 못함으로써 법학파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법학파들은<sup>15)</sup> 사회가 직면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해결책들은 각 학파가 인정하고 있는 전통과 판례를 따름으로써 다양해 질 수밖에 없었다.<sup>16)</sup> 또한 처벌의 방식 정도도 법학파들과 각 지역 공동체들, 그리고 사회의

14) 코란이나 하디스에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핫드형이라는 명백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지나(간음)의 경우에는 명백히 핫드로 규정되어 있으며, 코란에는 미혼자에게 100대의 태형을, 하디스에는 기혼자에게 투석형을 선고하고 있다(Hassan El Menyawi 1912, 399~400).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볼 때 미혼자에게 투석형을 집행한다면 기혼자에게는 당연히 투석형이 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15) 법학파들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그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원인들 중 하나는 동성애 행위자들의 결혼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그 행위자가 독신인 경우에는 완전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았다. 결혼한 남성이 동성애 죄를 범한 경우에는 최대한도의 처벌을 받지만 독신 남성의 경우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다(Martin 1997, 9-10/ Abdelwahab Bouhdiba 1998, 15).

16) 일반적으로 이슬람 법학파라 하면 순니 4대 법학파인 한발리, 말리키, 샤피이, 하나피 학파를 말한다. 한발리 학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공인 법학파이며, 말리키 학파는 서부 아랍 권과 이베리아반도, 아프리카국가들에서 신봉된다. 샤피이 학파는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신봉되며, 하나피 학파는 중앙아시아, 터키, 인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졌는데, 각 법학파들의 고유한 견해에 따라 처벌이 감해지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였다.

법학파들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와 처벌에 대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번호	법학파	관련 내용	처벌
①	한발리 <sup>18)</sup>	동성애 행위를 비 합법적인 성행위인 간음의 범주로 간주한다. 이들 중 일부는 동성애가 간음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였다. 동성애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 네 명의 목격이나 피고인이 네 번의 다른 기회들에서 고백을 해야만 한다.	투석이나 칼에 의한 사형을 선고하였다. 어떤 법학자는 능동자만 사형을, 수동자는 태형과 추방을 주장했다.
②	말리키 <sup>19)</sup>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양자 모두 투석에 의한 사형을 선고했다.
③	샤피이 <sup>20)</sup>		결혼을 하지 않은 이에게는 태형과 일시적인 추방을, 결혼을 한 이에게는 투석이나 칼에 의한 사형을 선고했다.
④	하나피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며, 육체적인 처벌은 판사의 결정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처벌이 코란과 하디스에 의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는 타오지르 죄라고 보았으며, 핫드 죄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보았다.	판사의 결정에 의한 처벌(타오지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처벌은 벌금이나 태형이며, 반복될 경우는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파키스탄 등지의 공식 법체계이다(김정위 편 2002, 336~337).

- 17) 법학파들의 동성애에 관한 견해들은 다음 자료들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عبد الرحمن الجزية دي 1999 112-118 :/ Scott Siraj al-Haqq Kugle 2010, 145-166 /http://www.answering-islam.org/Authors/Arlandson/homosexual.htm/http://www.faithology.com/topics/homosexual -practices-in-individual-schools-of-islam
- 18) 이맘 한발리는 기본적으로 법학자들의 이성보다는 하디스의 문자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남성들 간의 동성애 행위를 간음과 동등한 죄로 보고 투석형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Scott Siraj al-Haqq Zugle 2010, 154). 한발리는 신학으로 인해 특히 무오타질라의 신학으로 인해 코란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게 되어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지전능한 신의 책을 왜곡하게 되었다는 생각 아래 모든 신학 자체를 부정하였다(이원삼 2010, 38).
- 19) 샤리아를 체계화하려는 초창기의 시도들은 무슬림의 관습을 이슬람법으로 입안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법학파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해 볼 수 있다.<sup>21)</sup>

첫째, 네 법학파들은 동성애가 범죄 행위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다. 즉 한발리, 말리키, 샤피이 학파는 동성애를 간음(지나)과 같은, 또는 그보다 더 엄중한 수준의 범죄로 보는 반면, 하나피 학파는 간음보다는 덜 엄중한 범죄로 간주한다.

둘째, 동성애의 처벌에 대해서도 이견을 가지고 있다.<sup>22)</sup> 한발리, 말리키, 샤피이 학파는 동성애를 핫드형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처벌은 사형이나 태형으로 규정했다.<sup>23)</sup> 반면에 하나피 학파는 코란이나 하디스에 동성애가 핫드형으로 명

특히 이맘 말리크는 이슬람법을 메디나 어른들의 관습이라고 생각했다. ‘룻의 백성들이 한 행위’를 한 사람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투석형을 집행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메디나의 존경 받는 어른들의 관습이었다. 이처럼 말리크는 메디나의 1세대 무슬림들의 관습을 보편적인 이슬람법의 표준으로 삼았다 (Scott Siraj al-Haqq Zugle 2010, 145-147).

- 20) 이맘 샤피이는 이슬람법이 무슬림들의 축적된 관습이 아니라, 코란과 하디스를 기초로 한 유추(연역적 이성)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간음의 처벌에 유추해 핫드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cott Siraj al-Haqq Zugle 2010, 150-151).
- 21) 동성애에 대한 법학파들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법학파들은 남색(sodomy)만을 다루고 있다. 둘째, 각 개별 법학파의 공식적인 태도가 그 학파 내의 권위자에 의한 공식적인 선언이 아니며, 학파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각 법학파의 견해는 이슬람의 보편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양한 법적 견해라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동성애 행위를 한 게이이나 레즈비언은 모스크에 의해 거부되거나 이슬람 공동체로부터 추방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http://www.faithology.com/topics/homosexual-practices-in-individual-schools-of-islam>).
- 22) 동성애를 핫드로 규정한 세 학파들 간에도 처벌이 하디스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주장과 간음의 파생된 유추라는 주장으로 일치되지 않는다. 네 학파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비난하고 금지했지만, 코란이 동성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학파 내의 법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피 학파 내에서도 다수가 동성애를 핫드로 보지 않는데 반해 일부는 간음의 핫드형에 유추해 동성애도 핫드형을 부과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통치자마다 처벌을 집행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제1대 정통 칼리파인 아부 바크르는 주체자를 봉괴된 담 아래에 생매장하고, 그 상대자는 화형을 시킬 것을 명했다. 3대 칼리파인 우스만(644-656 재위)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동성애 주체자에게 100대의 채찍형을 내렸으며, 4대 칼리파인 알리(656-661 재위)는 주체자에게는 투석형을, 그 상대자에게는 미나레트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는 형을 집행했다(Hassan El Menyawi 2012, 400-404).
- 23) 쉬아의 12 이맘파 또한 손니의 세 학파들처럼 양자 모두에게 사형을 규정했으며, 4명의 증인을 요구했다(Wael B. Hallaq 2009, 315). 또한 실제 삽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자 모두를

백하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오지르형으로 분류했으며, 처벌은 태형이나 벌금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다소 관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하나피 학파도 그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사형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동성애의 유죄판결을 위한 특정한 증거 필요조건들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동성애를 핫드로 규정하는 한발리, 말리키, 샤피이 학파는 더욱더 엄격한 증거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 네 명의 목격이나 피고인이 네 번의 다른 기회들에서 고백을 해야만 한다. 반면에, 동성애를 타오지르로 규정하는 하나피 학파는 좀더 느슨한 증거 원칙을 가지고 있다 (Hassan El Menyawi 2012, 404-406).<sup>24)</sup>

#### 4. 파트와(الفتوى)

이슬람 법학자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코란과 하디스에 입각하여 내 놓은 의견인 파트와는 법적인 판결이 아닌 종교적 의견이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법과 같은 권위를 갖기도 한다. 여기서는 동성애에 관한 현대 이슬람 법학자들의 견해와 아랍인들의 관심사를 통해 동성애 문제의 현재성을 획득하기 위해 일부 파트와들을 발췌하여 번역하고 정리하였다.<sup>25)</sup>

엄격히 처벌했다(John L. Esposito 2009, 438).

24) 세 학파들의 경우 동성애를 유죄 판결하기 위해서 증언은 필수적이며, 네 명의 남성(성인, 자유인, 책임감 있는 사람)의 직접적인 목격에 대한 증언이어야 하며 상황 증거나 소문은 채택되지 않았다. 증언의 필요조건들은 매우 엄격하며 중상 모략자에 대해서는 80대의 태형이 적용되었다. 만일 동성애 혐의자가 네 번의 다른 시간대에 자백을 한다면 증인 네 명의 증언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하나피 학파는 증인과 함께 상황 증거와 소문을 채택하며, 증거가 있으면 동성애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가능하였다.

27) 여기서 다룬 파트와들은 카타르 종교성 산하 파트와 센터에서 운영하는 웹 (<http://fatwa.islamweb.net/fatwa/index.php>)에 'لواط' 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내용들 중 일부를 발췌, 번역하였다. 질문과 파트와 중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공개적인 논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골적인 표현은 일부를 변경 또는 생략하였다.



번호	질문 및 파트와	파트와 날짜/ 번호
①	(질문) 핫드형을 받아야만 하는 지나(간음)의 조건은 무엇 (완전한 삽입)인가? 만일 삽입이 완전하지 않고 외부적 접촉이었다면 어떤가? (파트와) 핫드형을 받아야만 하는 지나는 완전한 삽입일 경우이다. 만일 간음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100대의 태형과 1년간 추방이며, 그가 정당한 결혼을 한 기혼자라면 죽을 때까지 돌려 칠 것이다. 만일 엉덩이에 삽입하였다면 그것은 동성애이다...	2000.12.14/ 4458
②	(질문) 적을 속이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간음을 하거나 술집에 가는 것 같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가끔은 허용되는가? (파트와) 어떤 조건하에서도 간음이나 술을 마시거나 동성애와 같이 혐오스러운 행동은 금지된다.	2001.06.26/ 8789
③	(질문) 동성애를 하지 않은 아이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은 무엇인가? (파트와) 아이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동성애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동성애는 가장 큰 범죄들 중의 하나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 중 하나로서, 동성애자는 천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이런 이유 때문에 이슬람은 능동자와 수동자를 처벌한다... 동성애는 가장 혐오스런 지나(간음)의 종류들 중 하나이다...	2002.09.19/ 22501
④	(질문) 핫드형의 집행을 필요로 하는 금지된 행위들은 무엇인가? (파트와) 샤리아가 핫드형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한 7가지 범죄들은 살인, 배교, 간음, 거짓 고발, 음주, 절도, 노상 강도이다... 한편 동성애는 간음의 의미에 포함되며, 동성애자의 처벌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법적으로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능동자이건 수동자이건 사형이다. 단 그는 제 정신이어야 하며,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	2004.02.25/ 17567
⑤	(질문) 나는 남자 친척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성기를 만지는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그는 15살인데, 아직까지 그 일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한 행동이 매우 후회스럽다. 이것은 동성애로 여겨지는가? (파트와)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회개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지된 일이기 때문이다...	2003.04.23/ 31073



⑥	<p>(질문) 나는 외국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 어느 날 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동성애 죄를 저질렀다. 내가 알기로 완전한 삽입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다…</p> <p>(파트와) 당신은 이 큰 죄에 대해 회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가장 추하고 가장 역겨운 범죄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알라께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룯의 백성들을 비난하셨다…</p>	2004.12.19/ 57027
⑦	<p>(질문) 나는 타워에 살고 있으며, 엘리베이터에 가끔씩 한 남자와 같이 탄다. 그런데 우리만 남았을 때 그가 내게 키스를 하고 나를 끌어안는다. 나는 그에게 한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한다. 그리고 가끔은 사탄이 내게 동성애를 속삭이기도 한다. 이 속삭임에는 건강한 무엇인가가 있는가?</p> <p>(파트와) 남자들간의 키스와 포옹이 동성애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성애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 남자를 강하게 꾸짖기를 충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자는 원할 때마다 키스와 포옹을 하려 할 것이다.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강하게 막아야 한다.</p>	2004.05.02/ 48196
⑧	<p>(질문) 벌거벗은 남자들의 사진을 보는 것은 동성애인가?</p> <p>(파트와) 금지된 것들을 보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벌거벗은 남자의 사진을 보는 것은 행위자를 핫드형에 처해야 하는 동성애로 여겨지지 않는다.</p>	2004.12.09/ 56621
⑨	<p>(질문) 나는 몇 년 동안 나쁜 (남자) 친구랑 수치스러운 동성애를 했는데, 지금은 알라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러나 가끔씩 약에 사로잡혀 둥근 무엇인가를 내 엉덩이에 넣는다. 이것이 동성애인가?</p> <p>(파트와) 알라께서 당신이 동성애를 벗어나도록 치료해주셨는데, 동성애자에 대한 알라의 처벌은 지독한 고통이다… 내가 알기로 무엇인가를 엉덩이를 집어 넣는 것은 동성애는 아니지만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금지된 것이다…</p>	2005.03.23/ 60159
⑩	<p>(질문) 한 친구가 그의 (남자) 친구를 포옹하고 그의 입과 그의 모든 신체에 키스를 한다면 이것은 동성애인가?</p> <p>(파트와) 남자가 남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여자가 여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차단막도 없는 몸을 만지면서 포옹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핫드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동성애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법적으로 한 남성의 성기가 상대방의 엉덩이에 완전한 삽입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p>	2006.03.05/ 72196



이상의 파트와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현대 파트와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견해가 간음에 상당한다고 보는 경우(③, ④, ⑥)에서부터 혐오스럽고 금지된 행위로 보는 경우(②, ⑤)까지 다양하다.

둘째, 동성애의 처벌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동성애를 가장 혐오스러운 간음의 수준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사형 집행을 언급하는 경우(④)와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권하는 경우(⑥), 처벌의 종류와 방식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③)가 있다.

### III. 이슬람사회의 동성애 인식

동성애에 대한 언급과 처벌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지만 코란은 예언자 루트의 백성들이 한 행위와 관련된 여러 번의 언급을 통해 동성애 행위를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일(الفاحشة)로 규정하였다. 이후 예언자의 순나를 통해 코란의 불명료함이나 해석의 개방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여 동성애가 이슬람사회에 해가 되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의 처벌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동성애 문제는 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이슬람 법학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학파)에게 던져졌으며 그들 또한 다양한 상황들(학파, 공동체, 사회 등)을 고려하게 되면서 처벌과 증명의 방식에 있어 더욱더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동성애의 법적 규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은 아랍세계에 이슬람이 도래하기 이전에도 동성애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슬람 이후에도 계속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슬

람 이전 시대(450~622)의 동성애 상황을 시작으로 이슬람 시대의 동성애 상황을 장소와 대상, 그 원인과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아랍-이슬람 세계의 가장 주도적인 기록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아랍시를 통해 동성애 관습의 모습을 확인할 것이다.

동성애는 이슬람 이전 시대에도 보기 드문 관습이 아니었으며, 다양한 종교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주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했던 상인들, 우상숭배 관습들이 동성애의 확산에 일조하였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했던 군사정복이 동성애 관습의 확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졌다.

“이슬람 이전 시대와 이슬람 초기 시대에 동성애가 확산된 것은 방어력이 없는 방대한 인구 위에 호전적인 정복자 계층이 중첩된 결과였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의 정복은 고대 근동의 모든 독립 국가들을 휩쓸었다. 이후 아랍, 터키, 몽골 등 어떤 정복자들이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었다. 끝없이 제공된 모든 종족들, 색깔들, 모양들, 인격들을 가진 소녀들을 경험한 뒤 한층 더 강력한 만족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매력 있고 젊은 청년들의 유행이 힘 있는 남자들의 특권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지배 계층의 특권은 제거되고 전체 사회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 (Martin 1997, 2 재인용)

이슬람이 출현한 7세기 초에도 동성애 행위는 여전히 부유하고 권력 있는 계층들 사이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사도 무함마드가 속해있던 꾸라이쉬 부족에도 순종적인 많은 동성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꾸라이쉬 부족은 당시 메카의 부유하고 강력한 부족들 중의 하나로서 가장 유명한 우상숭배 성소인 카아바의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당시의 카아바는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우상숭배의 성소와 경제의 중심지였다(Martin 1997, 2).

이후 동성애 관습은 궁중과 하렘에서부터 일부 수피 집단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우선, 궁중으로부터 나온 기록들이 일반인들의 삶을 기록한 것보다는 더 풍부하며, 그 결과 마을들 내



에서 보다는 궁중들 내의 동성에 관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압바스조(750~1258)의 제6대 칼리파였던 무함마드 알아민(809-813 재위) 시대의 기록들로 볼 때 당시 동성에 관습이 궁중의 최 고위층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민의 경우 그가 칼리파로 재위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동성애를 탐닉했으며, 특히 환관(내시)이 동성에 행위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민은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으며, 환관 무리들과의 쾌락에 그의 전부를 바쳤다. 그는 후반기에는 소녀들처럼 옷을 입었고 그들을 ‘까마귀’ 라 이름 지은 흑인들과 ‘메뚜기’ 라 이름 지은 백인들로 조직했다.” 칼리파 아민의 동성에 행위는 수도를 넘어 전 왕국에 퍼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인들의 작품에 거론되었으며, 끝내는 동생인 마으문(813-833 재위)에 의해 폐위되었다(Martin 1997, 11~12).

압바스 시대의 동성에 관습은 아랍시<sup>26)</sup>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술을 하나의 독립된 주제인 주시(الغمرية)로 발전시켰던 페르시아 혈통의 아부 누와스(762~813)는(김능우 2004, 115~116) 남성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남성 혐모시를 지은 게이(gay) 시인이기도 했다(임병필 2008, 288).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정신을 빼앗긴 듯 합니다/ 나는 그의 빛나는 육체에서 눈을 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의 허리는 어린 나무 같고, 그의 얼굴은 달 같습니다/ 사랑스러움이 그의 장밋빛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것을 비밀로 해 주세요/ 우리를 묶고 있는 건 끊어지지 않는 밧줄/ 당신을 창조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당신은 천사인가요?/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을 칭송하는 일뿐” (임병필 2008, 288 재인용).

26) 아랍시는 이슬람 이전 시대부터 이슬람 시대 전반에 걸쳐 가장 주도적인 문학 매개체였으며, 동시대의 온갖 사건들과 현상들을 기록한 역사라 할 수 있다. 즉 시와 시인은 동시대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다. 시와 시인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아랍시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기록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동성애가 용인되고 확산되어 있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한편 8세기 초 이슬람세계에 편입된 중세 스페인(711~1492)에서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의 혼합은 흔한 일이었으며, 동성애는 어떠한 사회 계층에도 제한되지 않았다. 기독교의 시작부터 14세기까지 서부 유럽에서의 동성애를 연구한 역사가 존 보스웰(John Boswell, 1947~1994)에 의하면, 중세 초기 스페인에서는 매춘에서부터 이상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동성애가 일반적이었다. 당시 동성애 행위들에 관한 많은 시와 노래들이 있는데, 통치자 무오타미드(1068-1091 재위)와 무오타민(1081~1985 재위), 시인 라마디(917~1012)와 이븐 사흘(1212~1251), 11세기 발렌시아의 통치자였던 무바라크와 무타파르에 관한 내용들이 많다(Martin 1997, 15~19).<sup>27)</sup>

11세기 세비아의 왕이었던 무오타미드는 시를 통해<sup>28)</sup> 다양한 남성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다음 작품은 그의 술 시동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그를 같이라고 불렀다; 두 개의 다른 칼들: 그의 눈들! 그와 이 두 개는 나를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칼에 살해되면 많이 아플까? 그의 눈썹에 두 대 이상을 맞아서! 그가 나에게 사로잡혔다 다음으로 내가 그의 매력 있는 눈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모두 주인들, 모두 노예들! 오 같이여, 사랑의 노예에게 친절하시오/ 너에 의해 자유롭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이 누구인가!” (Martin 1997, 15 재인용).

중세 스페인의 시인들, 작가들, 음악가들은 승리만큼이나 동성애를 축하하기

27) 최 고위 계층의 동성애 탐닉은 스페인의 통치자였던 압드 알라흐만 3세(929-961 재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기독교 소년 불모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소년이 거절을 하자 무참히 처형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와 같이 동성애의 쾌락은 지성을 갖춘 정치 엘리트에 의해 탐닉되었는데, 압드 알라흐만 3세, 하킴 2세(961~976 재위), 히삼 2세(976~1009 재위), 무오타미드는 공개적으로 남성 하렘을 갖기도 했다. 압드 알라흐만 3세의 뒤를 이은 하킴 2세는 여성에게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46세가 되어서도 후계자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여성 반려자를 찾아 소년의 옷을 입고 남자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28) 무오타미드는 안달루스의 정치적 격동기에 최강국의 위치를 점한 왕에서 말년에는 포로가 된 채 먼 이국 땅에서 유배생활로 삶을 마감했다. 무오타미드는 특히 유배 기간 동안 국가와 자신과 가족들의 불행과 비극적 운명을 시를 통해 노래한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이종화 1996, 204).



도 하였다. 한 예로 11세기 발렌시아를 통치했던 무바라크와 무닷파르는 해방된 노예들로서 발렌시아 궁중에서 봉사했는데 이후에 통치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사랑에 빠졌고, 경쟁이나 질투가 없는 완전한 신뢰와 상호 헌신의 관계로 기록되고 있다. 동성애를 찬양했던 시인들과 작가들과 음악가들은 무바라크와 무닷파르의 업적들과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그들의 궁중으로 몰려들었다(Martin 1997, 19).

한편 궁중 외에도 동성애 관습이 존재했던 이슬람사회의 또 다른 분야는 종교적 신비주의, 특히 수피 조직에서였다. 종종 비역(sodomy)은 신에 대한 사랑의 형태로 수피 조직들의 신비적인 관습 속에 편입되었다. 수피들의 이러한 관습은 정통 무슬림들에 의해 강한 혐오를 받았지만, 이런 형태의 비역은 수피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Martin 1997, 23~24).

13세기의 신비주의 수피 시인 잘랄루딘 루미(1207~1273) 또한 남자들과 소년들에 관한 성적이고 낭만적인 시를 생생하게 노래하였다.<sup>29)</sup> 루미의 작품들은 하나님의 남성적인 모습을 소년의 아름다운 모습과 연결시켰다. 8-9세기 수피 전통에 따르면 소년의 아름다움을 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남성적 인물에 대한 아름다움과 연결 짓는 방식이었다. 즉 압바스조의 발흥과 함께 무슬림 신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낱말을 선택하였다(Stephen Murray and Will Roscoe 1997, 309).<sup>30)</sup>

“춤을 춰, 당신이 부서져 열려야만 했을 땐/ 춤을 춰, 당신이 붕대를 찢어버렸을 땐/ 춤을 춰 투쟁의 한 가운데서/ 춤을 춰 당신의 피 속에서/ 춤을 춰, 당신이 완벽히 자유로울 땐” (Coleman Barks 2002, 138 재인용).<sup>31)</sup>

29) 동성애자들은 루미의 시를 동성애 시로 읽는다. 저자(루미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도 루미의 시를 예로택한 것으로 만드는 데 책임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루미는 섹스와 오르가즘보다 더 행복한 길이며, 그의 작품은 훨씬 의식적이며 자유롭다(Coleman Barks 2002, 1).

30) 수피시인들은 시인들의 감정 표현이 단지 인간 대 인간의 감정 차원을 뛰어 넘어 신과 인간의 합일의 상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장세원 2013, 86).

31) 이 작품은 연인으로 알려져 있는 샴스 앳타브리즈가 갑자기 사라진 뒤(살해된 것으로 추정) 루

“당신의 빛 속에서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당신의 아름다움 속에서 시를 쓰는 방법을// 당신은 나의 가슴 속에서 춤을 춘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러나 가끔 나는 당신을 본다/ 그리고 그것이 예술이 된다// 드럼소리가 공기 중에 올라온다/ 그것의 진동이 내 가슴에// 장단 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말한다/ “난 네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 이리 와, 이것이 그 길” (Coleman Barks 2002, 8 재인용).<sup>32)</sup>

또한 동성애의 모습은 종교 교사에게서도 발견되었다. 많은 코란 선생들은 너무도 가난하거나 자주 옮겨 다녀서 결혼을 할 수 없거나 매춘부를 살 돈이 없었다. 그런 경우에 선생이 그의 수업을 듣는 일부 소년들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선택된 소년의 부모나 소년 당사자들은 그러한 관습을 흔한 일로 생각했고, 종교 지도자를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러한 일을 참아 내었다. 그 결과 특히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애를 종교 지도자의 코란 교육에 대한 수업료의 형태나 하나의 서비스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Martin 1997, 24).

이슬람사회의 동성애 현상은 몽골시대<sup>33)</sup>, 맘룩시대(1250~1517)<sup>34)</sup>, 오스만제

미가 그를 애타게 찾았지만 실패하고 슬픔에 빠져 춤을 추었다고 한다. 한편 루미와 깊은 친분을 유지했던 세 명의 남자들(샤스 앳타브리즈, 살라딘 자르쿠브, 후삼)은 루미의 작품 세계와 수피 철학에 커다란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http://jesusinlove.blogspot.kr/2011/09/rumi-poet-and-sufi-mystic-inspired-by.html>).

- 32) 루미가 동성애자이고 루미의 작품이 동성애 시라고 하는 주장은 확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주장이 많은 것은 인용한 작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 작품 또한 “내가 왜 그를 찾을까? 나는 그와 동일한데/ 그의 본질이 나를 통해 말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있었네” 와 같이 루미 자신과 샴스 앳타브리즈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로 융합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 33) 1258년 압바스조를 멸망시킨 몽골군은 타브리즈를 수도로 한 일한국(1256~1411), 남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킵차크한국(1243~1502), 천산북로의 에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오고타이한국(1218~1310),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차가타이한국(1227~1360), 중앙아시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던 티무르제국(1370~1507)에 이르기까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화되었다(황보중우 편저 2003, 420, 475, 525, 589).
- 34) 이 시대에는 일부다처와 축첩이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유행했는데, 동성애 또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동성애 관습이 그들의 부인들을 줄이거나 하렘을 축소하지는 않았다(Leila Ahmed 1992, 104).



국(1299~1922)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터키 궁중에 배속된 수염 없는 소년 무용수들로부터 목욕탕에서 일하는 잘 생긴 맛사지 소년들에게까지도 나타났다. 오스만시대의 궁중에서는 동성애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기도 하였다. 1623년 무라드 4세(1623~1642 재위)는 10살의 나이에 오스만제국의 술탄으로 선언되었지만, 어린 시절 동안에는 그의 어머니인 퀘셈(kiusem)이 나라를 통치했다. 이때 그녀는 하렘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아들의 동성애를 조장했다(Martin 1997, 13~14).

오스만시대에는 여성 동성애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곳이 하렘이다. 하렘 내에서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렘이 외부인들에게는 격리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스만 법정의 증거들은 환관이 감시하는 데도 하렘 내에서 레즈비언 행위들이 행해졌다는 강한 의심을 제공한다. 하렘의 소녀들은 전쟁이나 외교를 위해 훈련을 받은 시동들이 동성애를 탐닉하였듯이 여성간의 동성애를 탐닉했다. 레즈비언 행위는 하렘의 가장 쉽고도 매우 일반적인 비행이었다. 하렘 구성원들의 성적 비행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행위를 목격한 네 명의 자유인 남성들의 증언이나 참여자들의 자백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하렘 내에서의 동성애 관습은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sup>35)</sup>

동성애 관습이 일반적인 것으로 기록되었던 또 다른 장소는 대중 목욕탕인 함맘이다. 이들 궁중 목욕탕은 하렘과 같이 참여자들의 접근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 동성애를 조장하였다. 귀족들과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덕택으로 동성애를 탐닉할 수 있었던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대중 목욕탕에서 그러한 탐닉의 기회를 발견하였다. 가난한 여성들에게 목욕탕은 매우 편리한 장소였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녀들은 남편들과 아버지들의 통제를 대부분 벗어날

35) 그러나 하렘에서의 동성애 관습에 대한 처벌은 즉각적이고 가혹했다. 압바스조의 제4대 칼리파인 무사 알하디(785~786 재위)는 그의 하렘에서 레즈비언 행위로 인해 참수된 두 여인들의 머리에 향수를 뿌리고 장식을 해 그의 특사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한다(Martin 1997, 21-22).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555년부터 1562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냈던 부스베끄(Ogier Ghiselin de Busbecq, 1520~1592)는 함 앞에서 여성들 간에 행해졌던 동성애 관습에 관한 장문의 편지를 썼다<sup>36)</sup>: “많은 여성들이 여성용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 젊은 남자들이 소녀들과 사랑에 빠지듯이, 이곳에서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사랑에 빠졌다. 가끔 터키인들의 예방책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데, 한 남자가 아내를 남성 연인으로부터 지키는데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여성 경쟁자로부터 위협에 빠질 수 있다. 여성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목욕탕은 그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일부 남자들이 가능한 한 아내들을 그곳에 못 가게 하지만 법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sup>37)</sup> 항상 그럴 수는 없다.” (Martin 1997, 25 재인용).

이처럼 하렘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여성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동성애를 택한 지성적인 여성들이나 성적 좌절과 격리로 인해<sup>38)</sup> 동성애에 빠진 하렘의 여성들과 달리, 진정한 사랑과 자연스런 동성애 충동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결국 대중 목욕탕은 많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대중 목욕탕의 실태가 널리 알려지면서

36) 부스베끄는 오스만제국의 대사를 역임하는 동안 네델란드에 있는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냈고, 이후 『터키의 편지들 *Turkish Letters*』이란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세계 최초의 여행문학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부스베끄는 대중들의 삶과 제국에서의 모험들, 술탄의 직속경위대인 예니체리의 성품과 기능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였다.

37) “남성은 속옷을 입지 않고는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여성의 경우는 몸이 아프거나 산후가 아니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는 하디스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슬림이 대중 목욕탕에 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였지만, 원천적으로 여성의 목욕탕 출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유스프 까르다위 2012, 188~190).

38) 이성격리가 고전 이슬람시대에 동성애 관습의 유행을 가져온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당시 대부분의 사회가 여성들에게는 성적 격리와 비굴한 역할을 강요하였다. 20세기 중반 많은 연구자들은 성적 좌절과 성차별이 고전시대의 동성애 행위들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여성으로서 그녀들에게 부과된 성적, 지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부 여성들은 남성중심사회에서 금지되었던 레즈비언 관계들로 전환함으로써 세상의 남성적인 양상을 회피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러한 선택을 한 여성들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아니라 상위 계층이며 잘 교육받은 여성들이었다는 점이다. 즉 동성애는 그녀들을 제한했던 전통적인 역할들을 무시하는 수단으로 나타났던 것이다(Martin 1997, 23).



오스만제국 동안 일부 목욕탕들은 동성애 목욕탕으로 유명해졌고, 예리체리에 의해 감시되기도 하였다(Martin 1997, 25).

한편, 오스만제국 초기(1500~1800)의 시리아 지역 시작품들을 기록했던 무함마드 칼릴 알무라디(?~1791)의 전기 사전에 기록된 여러 작품들에 ‘솜털(عذار)’이라는 시어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마스쿠스 시인 무스타파 앓수마디(?~1725)의 작품에는 “솜털이 연인의 두 뺨에 나타나면 마른 먼지처럼 그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솜털이 남겼던 뺨에 매료되었던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한 점 결함 없는 아름다움을 보완하는 순수하고 부드러운 뺨에 반했습니다” (Khaled El-Rouayheb 2005, 6 재인용)와 같이 수염이 없거나 솜털이 난 뺨을 가진 젊은이들의 매력을 비교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주제였다. 그 외에도 오스만제국 초기에 동성애가 널리 용인되었다는 증거는 ‘알리, 하산, 술라이만과 같은 연인의 이름’, ‘소년’ 과 같은 시어들을 언급하고 있는 사랑시가 많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Khaled El-Rouayheb 2005, 3~6).

#### IV. 결론

이슬람사회의 근본은 온전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슬람은 합법적인 남녀관계를 제외한 비 합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래서 코란에 제시된 룯의 백성들 이야기를 동성애에 관한 알라의 경고와 처벌의 근거로 보았으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순나 또한 이 구절을 동성애가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근거로 사용했다. 이후 4대 법학파와 현대적인 파트와를 제시하는 이슬람 법학자들 또한 코란과 하디스의 구절들을 동성애를 경고하고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사회에는 동성애 행위에 대해 태형, 추방, 사형(투석형, 화형,

참수형, 생매장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리파, 군대, 시인, 수피, 종교 교사들, 궁중무용수, 맛사지 소년, 하렘의 여인들, 일반 여성들(목욕탕), 엘리트 여성들 등 통치자와 지배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동성애가 근절되지 않았고 공공연한 비밀로 묵인되어 왔다. 이들이 동성애를 탐닉한 이유나 원인 또한 특권의식, 정치적 목적, 신에 대한 사랑, 교육의 대가, 격리되고 억압된 여성들의 해방(자유), 남성중심사회에 대한 반항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무엇보다 이슬람사회에 동성애가 근절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과 처벌이 불명확한 코란, 코란의 불명확함과 해석의 개방성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순나, 다양한 해석과 처벌 수준을 주장했던 법학파들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인식<sup>39)</sup>과 처벌이 천차만별이 되면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남성 동성애가 용인되는 주요한 이유가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과 결혼한 남성들 간의 여성에 대한 투쟁을 완화시키고, 독신 남성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Jelena Čvorović 2006, 86, 92, 101)라는 주장을 생각해 볼 때 동성애를 묵인하는 것이 이슬람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더 필요한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샤리아를 통해 동성애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이슬람사회 내부의 동성애 관습을 묵인하여 인간의 성적 권리가 위축되거나 침해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다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묵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어: 샤리아, 동성애(리와트), 코란, 하디스, 법학파, 파트와, 간음 (지나), 동성애 시, 하렘)

39) “동성애 욕구는 선천적인 것으로,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에 의해 창조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을 이슬람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하느님의 천지창조를 배제시키는 것이며, 이슬람에 의해 주장되는 진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 는 주장(Kecia Ali 2010, 89-90) 또한 이슬람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들 중의 하나이다.

## 참고문헌

- 김능우(2004). 『아랍시의 세계』, 서울: 명지출판사.
- 김능우 주해(2012). 『무알라카트』, 서울: 한길사.
- 김정위 편(2002), 『이슬람 사전』, 서울: 학문사.
- 김호동(2003). 『역사서설』, 서울: 까치.
- 송경숙외(1992). 『아랍문학사』, 서울: 송산출판사.
- 안정국(2013). “이슬람과 성적 소수자”, 『중동연구』 제31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유수프 까르다위 저, 최영길 역(2012).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서울: 세창출판사.
- 이원삼(2001). 『이슬람법사상』, 서울: 아카넷.
- 이원삼(2010). “초기 이슬람 윤리사상 연구”, 『중동문제연구』 제9권 1호,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 이종화(1996). “세비야의 왕 ‘알무우타미드’의 불행한 삶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6권.
- 임병필(2008). 『아랍인의 사랑』, 서울: 한국학술정보.
- 장세원(2013). “이슬람이전 아랍시인의 문화적 자유와 관습적 제약”, 『중동문제연구』 제12권 3호,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 최영길(1997).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 국왕 성 꾸란출판청.
- 최영길외(2005). 『꾸란 어휘 사전』, 서울: 도서출판 알림.
- 최영길(2009).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서울: 살림출판사.
- 하이다 모기시 저, 문은영 역(2009). 『이슬람과 페미니즘』, 서울: 프로네시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2005). 『세계의 성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황보중우 편저(2003). 『세계사사전』, 서울: 청아출판사.
- Abdelwahab Bouhdiba(1998). *Sexuality in Islam*, Saqi Books.
- Coleman Barks(2002). *Rumi: The book of love*, Harper Collins e-books.
- Hassan El Menyawi(2012). “Same-sex marriage in Islam”, *Wake Forest Journal of law&policy Vol. 2:2*.
- Jane Dammen McAulife(2002). *Encyclopaedia of the Qurān*, Leiden-Bosten: Brill.
- Jelena Čvorovič(2006). “Islamic homosexuality”, *Antropologija 1*, Antro Serbia.
- John L. Esposito(2009).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Islamic World Vol. 2*, Oxford University Press.

- Juynboll G.H.A.(2007). *Encyclopedia of Canonical Hadīth*, Leiden · Boston: Brill.
- Kecia Ali(2010). *Sexual Ethics and Islam*,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 Khaled El-Rouayheb(2005). “The love of boys in Arabic poetry of the early Ottoman period, 1500-1800”, *Middle Eastern Literature Vol. 8, No. 1*.
- Leila Ahmed(1992). *Women and gender in Islam: Historical roots of a modern debate*,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Martin, Stefanie Lee(1997). “The Role of Homosexuality in Classical Islam”, University of Tennessee Honor Thesis Project, [http://trace.tennessee.edu/utk\\_chanhonoproj/231](http://trace.tennessee.edu/utk_chanhonoproj/231)
- Muhammad ibn Adam al-Kawthari(2008). *Islamic guide to sexual relations*, Huma Press.
- Scott Siraj al-Haqq Kugle(2010). *Homosexuality in Islam: Critical Reflection on Gay, Lesbian and Transgender Muslims*,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 Stephen Murray and Will Roscoe(1997). *Islamic Homosexualities: Culture, History, and Literature*, New York: NYU Press.
- Wael B. Hallaq(2009). *Shari‘a: Theory, practice, transform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القرآن الكريم

- الفتوى في الإسلام، الرياض: مكتبة التوبة، (2008) عبد الله بن عبد العزيز الدرعيان.
- محاضرة في الشريعة الإسلامية وفقهها ومصادرها، القاهرة: دار السلام للطباعة، (1990) عبد الله ناصح علوان والنشر والتوزيع والترجمة.
- كتاب الفقه على المذاهب الأربعة، الجزء الخامس، القاهرة: مطابع سجل العرب، (1999) عبد الرحمن الجزيري.
- قصص القرآن، بيروت: دار ومكتبة الهلال، (1985) محمد أحمد جوالمولي.
- “Abu Nuwas, the first and foremost Islamic gay poet”, <http://www.gay-art-history.org/gay-history/gay-literature/gay-poetry/abu-nuwas-as-gay/abu-nuwas-gay-poet.html>(Search: 2014.1.7)
- “Homosexual practices in individual schools in Islam”, <http://www.faithology.com/topics/homosexual-practices-in-individual-schools-of-islam>(Search: 2014.1.7)
- “Sharia sure ain’t gay Muhammad and the homosexual”, <http://www.answering-islam.org/Authors/Arlandson/homosexual.htm>(Search: 2013.12.17)
- “Rumi: Poet and Sufi mystic inspired by same-sex love”, <http://jesusinlove.blogspot.kr/search?q=rumi>(Search:2013.1.7)
- “LGBT in Islam”, [http://en.wikipedia.org/wiki/LGBT\\_in\\_Islam#Homosexuality\\_laws\\_in\\_majority\\_Muslim\\_countries](http://en.wikipedia.org/wiki/LGBT_in_Islam#Homosexuality_laws_in_majority_Muslim_countries)



230 | **한국중등학회논문총** | 제34권 제4호 [2014. 02]

<http://sunnah.com/>(Search: 2013.12.17)

**논문접수일:** 2013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02월 02일

**게재확정일:** 2014년 02월 17일